

언더그라운드 만화와 히피문화 : <Zap Comix No.1>을 중심으로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Zap Comix No.1>의 언더그라운드 만화적 특징 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함종호

초 록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1960년대에 히피문화를 반영하여 시작된 만화의 한 흐름이다.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치며, 인간성이 상실된 전쟁과 물질문명 사회제도를 부정하는 히피문화를 반영한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급진적이면서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반문화를 표현하였다.

로버트 크럼(Robert Crumb)은 만화집 <Zap Comix> 시리즈 발간을 통하여 히피문화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만화에 반영하였다. 특히 <Zap 1호>는 히피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언더그라운드 만화가 더욱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화집 <Zap 1호>에는 보수 중산층의 숨은 욕망을 표현한 '화이트맨(Whiteman)'과 으스스대면서, 웃으며 걷고 있는 모습의 캐릭터로 히피 문화 속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킵 온 트럭킹 (Keep on Truckin')' 등의 작품이 있다.

<Zap 1호>는 출판과 유통에 있어서 독립성을 기하였고, 히피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캐릭터 중심의 만화였고, 히피문화의 특징을 구불구불한 선과 점, 강렬한 명암 대비로 그래픽적 효과가 우수하게 표현한,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특징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 만화들은 당시의 영웅주의적인 만화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의 풍자적 표현이 보다 더 자유로운 언더그라운드 만화시대의 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 <Zap Comix No.1>, 언더그라운드 만화, 로버트 크럼, 히피문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만화의 한 흐름으로서, 히피문화의 특징을 만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히피와 일반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급진적이고 반문화적인 표현과 함께 금기된 주제를 자유롭게 다루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풍미하고, 영국에서도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큰 붐을 일으켰다.

언더그라운드만화는 로버트 크럼(Robert Crumb)이 1968년 발행한 잡 코믹스 1호<Zap Comix No.1>(이하 <Zap 1호>로 표기)을 계기로 대중적인 호응을 받게 되었다. 로버트 크럼은 슈퍼맨 등의 영웅주의 만화가 주류를 형성하던 시대에 <Zap 1호>를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을 캐릭터로 하여 현실을 직접적으로 풍자하였고, 다양한 캐릭터와 동작으로 히피문화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만화에 반영하였다. 그 중에서 <킵 온 트럭킹>(Keep on Truckin') 이란 작품은 히피문화의 특징을 더욱 잘 반영하여, 히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 결과 이런 만화도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는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촉발 역할을 하였던 <Zap 1호> 분석을 통하여, <Zap 1호>에 표현된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당대의 상황을 어떻게 만화에 반영하였는지 그 연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Zap 1호>를 중심으로,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특징과 히피문화와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고자 출발하였으며, II장에서는 선행 연구 자료와 관련서적을 참고로 하여 시대적 상황과 언더그라운드 만화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하였다.

III장에서는 <Zap 1호>를 분석하여, 히피문화의 가치관이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출판 및 유통관계, 캐릭터 및 스토리 표현 그리고 만화 스타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연관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Zap 1호>의 언더그라운드 만화적 특징과 히피문화와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Zap 1호>의 만화적 영향과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Zap 1호>는 히피문화를 만화에 반영하여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붐을 이루게 만든 로버트 크럼의 만화책이므로, 먼저 히피문화에 대하여 살펴본 후, 언더그라운드 만화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히피문화

1) 히피문화의 성격

히피(hippie 또는 hippy)는 1960년대 미국에서, 자유를 중시하고 기존의 사회제도를 부정하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을 시도했으며, 전후 기술주의와 업적주의 등의 문명맹신적인 문화에 대한 저항을 펼치고자 했다¹⁾.

히피는 '좌파운동', '미국 시민권 운동'과 함께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반문화 운동이다. 히피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과 참전,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던 인종적·계층적 갈등, 보수적인 이념 일색의 지배문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미국의 학생운동·신좌파운동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히피는 196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층을 주체로 탈사회적(脫社會的) 행동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듬해에 뉴욕·로스앤젤레스·버클리·워싱턴 등의 대도시로 퍼져 나갔으며, 파리·런

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www.britannica.co.kr>, 검색어: 히피.

던까지 파급되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유와 사랑을 찾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며, 기성적인 것보다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기성의 사회통념·제도·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 회복, 자연에의 귀의를 주장하였으며, 페미니즘과 불교에도 관심을 갖고, 마약(마리화나, LSD)도 복용을 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였다.

2) 히피문화의 특징

히피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청년문화의 하나를 형성하였으며, 남성은 장발·수염투성이에 목걸이와 굵은 벨트에 부츠를 신었고, 여성도 장발·미니스커트에 샌들 또는 맨발이다. 그들은 대도시 안에서나 교외에 히피 빌리지를 형성하는데, 그러한 곳에는 젊은이들의 탈사회적 생활방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기부금 등으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다. 또, 인간성을 압살(壓殺)하는 물질문명이나 국가·사회제도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징병기피·반전·인종주의에의 반항 등을 내세운 캠페인을 벌이며, 기관지도 발행하였다.²⁾

이들은 비둘기나 꽃으로 전쟁의 상흔을 씻어내고 반전주의적인 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외관은 히피라는 용어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남자는 장발과 멋대로 기른 수염에다가 커다란 펜던트를 착용하고, 여자는 미니스커트에 샌들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생활양식에 배어 있는 보수적인 가치를 적대시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히피 스타일은 히피 관련 상점으로써, 미국과 캐나다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퍼져 있었으며, 최신 유행의 의류와 패션 잡화, 담배와 마리화나뿐 아니라, 코믹스 만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이키델릭(psychedelic)³⁾ 포스터를 판매하던 상점이다. 후에 그 내용상 기존의 신문판매소에서는 취급이 안 되었던 코믹스(comix)⁴⁾ 는

2) 두산 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검색어: 히피.

3) 환각제를 복용하여 환각 상태에 있는 것. 다음 어학사전, <http://dic.daum.net>, 검색어: 사이키델릭.

이 판매망이 좋은 대안이 되었다.

2. 언더그라운드 만화

1) 언더그라운드만화의 태동 배경

1960년대의 미국만화계는 1950년대의 보수주의에 대한 급진적 반동이 시작된 시기였다. 이미 1954년부터 미국만화잡지협회는 만화규약을 발표하고 검열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미국사회의 대량 소비와 물질만능, 경제격차와 보수적 억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만화 탓으로 돌리려는 보수층의 의도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억압에 대하여 젊은이들과 만화가들은 저항을 하기 시작하였다. 마틴 굿맨(Martin Goodman)과 스탠리(Stan Lee)는 만화출판사 마블(Marvel)을 만들고, <인크레더블 헐크>(Incredible Hulk), <어메이징 스파이더맨>(The Amazing Spider Man), <엑스맨>(X-Men), <데어데블>(Dare Devil) 등 권위와 사회의 보수적 규준을 부정하는 시대적 아이콘을 만들어 나갔으며, 젊은이들은 고민과 갈등, 마음의 상처를 잘 입는 개인주의적 영웅에 대하여 공감하게 되었다.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형성에 대한 원인으로써, 보수적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저항성 선호 분위기외에, 직접적으로 만화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도를 한 예가 있다.

우선 하비 쿠르츠만(Harvey Kurtzman)이 1950년대부터 출판한 만화잡지 <매드>(Mad)를 들 수 있다. 하비 쿠르츠만은 이 독창적인 만화책 속에 코미디를 자유롭게 펼쳐 보였고, 그것을 더욱 창조적으로 모방한 잡지들과 함께 신세대 만화가들에게 풍자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었다. 또한 하비 쿠르츠만은

4) 언더그라운드 만화가들은 차별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심의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한다는 의미인 X등급을 강조해서, 코믹스(comics) 대신에 '코믹스 comix'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로저 새빈, 김한영 역,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발, 2002, p.92.

<매드>이후의 만화책 <헬프!>(Help!)에 '아마추어 인재란'을 마련하여 수많은 미래의 언더그라운드 만화가들이 데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둘째, 대학잡지라는 경로가 있었다. 대학에서 출간되는 잡지들은 또한 지방적 특색과 풍자, 광범위한 정치적 쟁점들을 다루었으며, 코믹스(Comix) 만화가들의 등용문이 되어 주었다.

셋째는 만화규약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만화규약이 '폭력, 섹스, 약물, 사회적 표현 금지'를 요구했던 데 반하여,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최대한 탐닉함으로써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일깨우기 시작했다.

2) 언더그라운드만화의 태동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 1960년대에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이고, 예술적으로 혁신적인 유머러스한 만화책들이 새로운 물결을 이루어 등장하였고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이러한 물결 속에서 태동을 하였다. 당시 미국의 주류만화는 활력을 잃어버린 채 슈퍼 히어로들의 영웅주의적 만화들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비주류적 방식의 독특한 에너지를 과감하게 분출하였다.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당시의 주된 만화 시장이었던 어린이 시장을 이용하는 대신에, 마약, 반전 운동, 록뮤직, 섹스와 같은 주제들을 포함한 반문화를 표현했다 5).

3) Zap Comix와 언더그라운드 만화

대학잡지와 만화잡지 <헬프!>에 조금씩 시도되었던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로버트 크럼이 1968년 만든 만화잡지 <Zap 1호>가 히피즘을 통하여 유통되면서 히피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로버트 크럼이 <Zap 1호>를 그리게 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버트 크럼은 1943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만화를 그리며 성장하였고, 1959년

5) 로저 새빈, 김한영 역, 앞의 책, pp.92-94.

에는 키우던 고양이를 캐릭터로 하여 <고양이의 생활>(Cat Life)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1967년에는 히피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와 언더그라운드 신문인 <애로우스톡스>(Yarrowstalks)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막 나가는 구루 <미스터 내추럴>(Mr. Naural)을 처음 등장시킨 후에, <Zap 1호>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Zap 1호>에는 <미스터 내추럴>을 비롯해, 보수적인 중산층의 잠재된 욕망을 표현한 <화이트맨>, 초현실적 이미지를 담은 칸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울트라 슈퍼 모더니스틱 코믹스>(Ultra Super Modernistic Comics), 그리고 올드 뮤직 가사에서 따온 <킵 온 트럭킹>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Zap 1호>가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Zap 2호>에는 이름있는 여러 작가들이 합류하게 된다. 사이키델릭 포스터 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릭 그리핀(Rick Griffin)과 빅터 모스코소(Victor Moscoso), 그리고 ‘미친 만화6’를 그리길 원했던 클레이 윌슨(S. Clay Wilson) 등이 합류하게 되었고, 히피 출판사인 프린트민트(Print Mint)가 제작과 유통을 맡아주었다. 로버트 크럼이 언더그라운드 만화 운동의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진정한 촉매제이자 핵이 되었다. 이후에는 로버트 윌리엄스(Robert Williams), 길버트 셸튼(Gilbert Shelton)이 가세하였고, 2005년 15호(실제로는 16호)까지 출간된다.⁷⁾

<Zap 시리즈>는 언더그라운드 만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만화지만, 그 외에도 다른 훌륭한 코믹스 만화책들과 뛰어난 창작자들이 존재했다.

시카고에서 들어온 <비주 퍼니스>(비주 퍼블리싱, 1968)는 정치와 정치인을 익살스럽게 표현을 하였으며, <기묘한 섹스>(Bizarre Sex, 키친 싱크, 1972)는 섹스를 공상과학 만화로 표현하였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만화잡지 <영 러스트>(Young Lust, 컴퍼니 앤 선스, 1970)는 애정만화를 패러디한 섹

6) 클레이 윌슨은 하층민들의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성 표현과 탈선, 금기사항을 타락한 악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여, 충격적으로 표현하였다.

7) 로버트 크럼, 김제민 역, 『로버트 크럼의 아메리카』, 새만화책, 2004, pp.98-100.

스표현이 많았는데, 외설적인 만화 속에 유대인의 블랙 유머를 자유롭게 표출한 아트 스피겔만(Art Spiegelman)의 뛰어난 작품들이 실렸다.

4)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성격과 특징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기본적인 성격은 일종의 새로운 정치적 인식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미국의 히피 운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베트남전 반대 운동, 민권 운동,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여성해방 운동, 동성애자 해방 운동과 맞물려 있었다. 여기에 약물 복용과 자유연애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면서 ‘반문화’ 현상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이 독특한 발전을 반영했고, 동시에 히피 철학을 전파했다. ‘반문화’는 자기 자신을 꼼꼼이 생각하고 그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았던 동 시대의 수많은 록 밴드들만큼이나 중요한 시대적 사건이 되었다. 그 유행은 1967년경부터 1975년까지 지속되었고, 수천 종의 코믹스가 자체 생산 체계로 출간되었다. 기존의 만화와는 달리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생산라인 시스템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작가와 화가, 인쇄공과 활자공이 팀을 이뤄 한 편집자의 관리 하에 작업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모든 면을 자기가 직접 관리했다. 창작자는 마감시간에 관계없이 그 자신의 속도에 따라 작업을 했고, 히피 정신에 맞춰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고 사용료를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노동의 대가와 비례하는 재정적 혜택을 누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푼도 벌지 못할 수도 있었다.

5)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침체와 한계

히피 문화와 록을 함께 한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히피 운동의 종말 이후 침체기를 맞이했다.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내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히피 문화에 기반 한 것으로, 조직적인 결속력 또한 부족했으며, 작가적인 성찰보다는 정리되지 않

은 것들을 쏟아내는 식이었다. 과도한 시각성에 집착한 반면 이야기의 완성도를 지니지 못했고,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폭력과 성에 대한 비난과 함께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히피 유통망도 붕괴하기 시작했다.

아트 슈피겔만과 빌 그리피스(Bill Griffiths)가 1975년 로버트 크럼을 비롯한 언더그라운드의 영웅들을 불러 모아 <아케이드>(Arcade)를 창간하지만, 미완의 대기로 끝나고 만다. 1981년 <이어두>(Weirdo)를 새롭게 창간한 로버트 크럼은 보수화된 미국 사회의 불안과 허위를 더욱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며, 아트 슈피겔만의 <로우>(RAW)와 함께 미국의 대안적 만화를 이끌어 갔다. 그러나 레이건과 부시 이후 미국사회의 신보수주의가 득세하게 되자 1994년 미국을 떠나 프랑스로 이주해 버렸다.⁸⁾

III. <Zap 1호>의 언더그라운드 만화적 특징 분석

1. 출판과 유통의 독립성

<Zap 1호>가 출판된 1968년은 저항과 자유의 정신, 상상력의 가치와 실험성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던 때였다. 이 시기의 샌프란시스코는 히피운동의 발생지인 헤이트 애쉬베리(Haight Ashbury)에 전국의 히피들이 모여들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지하 방송국과 독립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연일 록 콘서트를 열었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주장을 언더신문을 통해 이야기 하였으며, 그에 따라 출판은 상업적인 주류출판회사가 아닌 소규모, 자비출판을 하였고, 이것은 히피와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전달되었다. 작가는 거대자본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작품을 통하여 직접 독자들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였다.

<Zap 1호>는 <애로우스투스>의 발행인인 브라이언 잔(Brian

8) 박인하, “화평-로버트 크럼의 아메리카”, 『성균지』, 2007년 9월 27일, http://skkpress.com/zboard/zboard.php?id=article&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9.

Zahn)의 제안으로 시작한 것으로써, 로버트 크럼은 <Zap 0호>와 <Zap 1호>를 1967년 말에 전 과정을 혼자서 제작을 하였다. 그러나, 브라이언 잔이 <Zap 0호>의 원고를 들고 사라져 인쇄를 할 수 없게 되자, <Zap 1호>를 먼저 출판한 후, 같은 해 얼마 있다가 <Zap 0호>도 출판하게 되었다.

히피 신문을 발행하던 돈 도나휴(Don Donahue)는 인쇄업자이자 비트 세대 시인인 찰스 플리멜(Charles Plymel)에게 자신의 스테레오 카세트를 팔아서 아펙스 노벨티스(Apex Novelties)라는 출판사명으로 <Zap 1호> 5천부를 출판하였다.

1968년 2월, 로버트 크럼은 만삭의 부인과, 친구들과 함께 책을 가득 실은 유모차를 끌고, 당시 히피 문화의 중심지인 헤이트 애쉬베리 사거리에서 나와서 <Zap 1호>를 판매하였으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돈 도나휴는 이 초판 5천부의 대부분을 히피 유통사에 넘겨 전국의 헤드숍과 히피 노점상에서 팔게 하였다.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나면서 예상 밖의 엄청난 호응 속에서 책이 팔리기 시작하였다.

<Zap 1호>의 가격은 35¢ 이었으며, 정확한 판매부수는 소규모 출판과 많은 복제본의 유통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잭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은 수백만부수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⁹⁾

이렇게 로버트 크럼의 <Zap 1>은 자비출판과 자비유통이라는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¹⁰⁾

2. 내용 구성

코믹스(Comix)는 히피문화를 자유롭게 표현했던 반문화매체(Counter Cultural Media)중의 하나인 이스트 빌리지 아더(East Village Other)와 같은 그래픽 신문 매체의 속성을 이어받아, 그

9) Wikipedia, <http://wikipedia.org>, 검색어: Zap Comix.

10) 코믹스 리더, “언더그라운드만화 02”, 2011년 9월 30일, http://blog.naver.com/c_media/130119767812.

래픽적으로 혁신적이며, 성, 마약, 장발, 정치비판 등 보수문화를 공격적, 충격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기존의 가족, 국방, 구직 등의 일률적인 이야기에 식상해있던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언더그라운드 만화가인 제이 린치(Jay Linch)는 “코믹스(Comix)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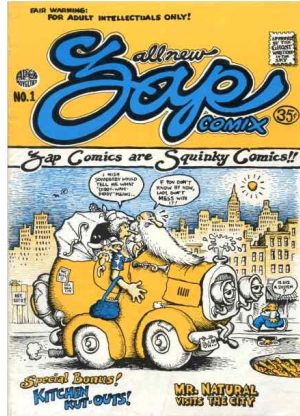


그림 1. <Zap 1호>의 표지¹¹⁾

<Zap 1호>는 가로 135*세로 190cm의 크기에, 28쪽 짜리 옴니버스(omnibus)형¹²⁾ 만화잡지로서, 표지에 언급을 하였듯이 성인 지성인을 위한 만화이고 만화규약의 심의를 받지 않은 만화이다. 새로운 만화언어를 제시했으며, 보수 중산층의 숨은 욕망을 꼬집은 <화이트맨>, 머리는 작는데 발은 거대한 ‘빅풋’(big-foot)¹³⁾ 스타일의 호느적거리는 캐릭터로 당대 히피 젊은이의 모습을 잘 은유한 <킵 온 트럭킹>등이 실려 있었다. <킵 온 트럭킹>은 히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로버트 크럼은 자신의 캐릭터도 등장을 시키는데, 자기혐오와 섹스 망상에 사로잡힌 지

11) Robert Crumb, *Zap Comix No. 1*, Apex Novelties, 1968.

12)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영화나 연극의 한 형식, 다음 어학사전, <http://dic.daum.net>, 검색어: 옴니버스.

13) 로버트 크럼이 만들어 낸 캐릭터의 특징으로, 작은 머리에 비해 거대한 손과 발을 갖고 있다.

식인으로 묘사했다.

<Zap 1호>에는 1쪽 내외의 단편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쪽수가 긴 것은 <화이트맨> 4쪽, <미스터 내츨릴> 6쪽으로, 앞 뒤 표지를 제외하면 총 26쪽 중 19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Zap 1호>의 9쪽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4개의 단편이 실려 있다. 이렇게 단편이 많은 이유는, 한정된 지면에 많은 캐릭터와 사건을 풍부히 제공하고, 또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대중들에게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단편들마다 고유의 캐릭터가 있어서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히피문화에서 추구하는 주제를 반영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히피문화의 특징은 매우 광범위하여 그 가치관 및 사상을 명료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사회질서, 지배문화, 기술문명, 보수이념 등의 기존 세계에 대한 저항과 비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과 자유, 사랑, 낙천, 초월, 허무, 일탈, 공동체, 실험성, 실용성 등이 히피문화의 핵심 개념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제별 내용을 정리하고¹⁴⁾, 언더그라운드 만화와의 연관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히피의 중심 주제	내 용
비판주의	기존문화(물질문명, 소비문화, 기계문화, 규범, 도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부정과 저항을 하는 태도
자연주의	자연에의 귀의를 주장하고, 전원생활을 함
개인주의	인간성의 조직화에 대한 반항, 자신의 고유한 것을 자발적으로 함, 내면 여행, 인간성 회복
자유주의	사회적 금기로부터의 자유 추구, 현재의 즐거움을 중시함, 마약 선호, 나체 선호, 프리섹스

14) 히피문화의 주제 및 내용 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간문자,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2). 두산 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검색어: 히피.

낙천주의	가난과 너저분한 외모, 느긋한 삶을 선택함.
사랑	사람사이의 육체적 정신적 공동체 중시, 친절, 인간관계의 신성함, 인류 포용, 남녀의 성 역할 해체, 꽃은 사랑을 상징함
초월주의 (신비주의)	규율을 초월하여 우주적 인식이나 보다 깊은 실재와의 조화를 추구함, 물질적 가치에 대한 반발로 인디언, 동양, 민속풍, 마약에 관심을 가짐
허무주의	진리나 가치, 초월적인 것의 실재나 그 보편적 기준을 모두 부정하는 사상적 견해, 불교나 노자 사상이 지향하는 무(無)나 공(空)의 사상이며, 근대 사회나 그리스도교 문명을 부정함
일탈	가정, 학교, 직장, 사회로부터 일탈하고 저항적 삶을 영위함, 누드 생활-인체의 완전함 발견, 성개방
공동체	사람사이의 육체적 정신적 공동체를 추구함. 히피 집단 공동체 농장 운영
실험성	기존사회에서 일탈하여 새로운 삶, 문화를 개척함, 사이키델릭, 마약, 고대문화 선호
실용성	반소비 반물질, 직접 만들어 쓰는 수공예품 선호

표 1. 히피문화의 중심 주제와 내용

위에서 밝힌 히피문화의 주제와 <Zap 1>에 표현된 캐릭터 및 스토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번호	제목	쪽수	캐릭터 및 스토리	히피문화 연관주제
1	앞표지	1	Mr.Natural이 고물차를 타고 도시를 다님 <Zap 1>의 성격(성인용, 인가거부)을 보여줌	비판주의
2	Definitely a Case of Derangement	2	크림 자신을 망상에 사로잡힌 천재 만화가로 표현	개인주의
3	Whiteman	3-6	중년 백인 회사원의 성욕, 공포 등 불안한 감정을 표현	비판주의
4	Breake-out Funnies Presents I'm a Dingdong Daddy	7-8	점프놀이 몽상을 하며 혼자 노는 소년을 표현	초월주의
5	Mr.Nature Encounters Flankey Foont	9	Mr.Nature 과 Flankey Foont 가 길에서 다투며 얘기를 나눔	비판주의
6	Eggs Ackley This Kid's a Scream	9	Eggs Ackley가 여자들에게 물총을 쏴	비판주의

15) 작품별 히피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결정하는 데는 본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

7	Gail Snail	9	친구랑 얘기하던 달팽이가 사람의 발에 밟혀 죽음	허무주의
8	The Walkie Talkies	9	워키토키를 캐릭터로 군대 얘기를 함	비판주의
9	Nuttin but Nuttin	10	권력을 잡기 위해 조작을 한 정치인을 비판함	비판주의
10	Here She Comes! IT'S HIPPIY!	10	Hippy 소녀가 마약을 하면서 남자와 섹스를 함	자유주의
11	Abstract Expressionist Ultra Super Modernistic Comics	11-13	구상과 추상, 변화무쌍한 칸, 무한 줌을 이용한 공간 변화 등 실험성이 짙은 만화	실험성
12	Kitchen Kut-Out	14-15	부엌의 물건들을 오려붙일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듦	실용성
13	Mr.Natural "Visit the City"	16-21	Mr.Natural이 Flankey Foont의 집에서 깨달은 척하며 음식을 뺏어먹음	비판주의
14	Keep on Truckin	22	노래를 부르며 느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	낙천주의
15	Just Us Kids!!	23-24	물건을 찾아다니다가 다른 구역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아이를 표현	비판주의
16	Har Har Page	25	여성을 성희롱하는 변태적인 남자를 표현	자유주의
17	Schman the Human	26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려는 남자가 통금 사이렌에 놀라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	비판주의
18	Flankey Foont Encounter Fatback	27	두 남자가 마약 구입에 대해 대화를 함	자유주의
19	Let 's Be Honest	27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아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남자가 먼저 말을 함	비판주의
20	Niger Hearts	27	흑인 심장으로 만든 통조림을 광고함	비판주의
21	Just Look At the Amazing Results	28	뒷 포지: 약물복용의 전과 후를 비교하며 함께 여행을 가자는 광고	자유주의

표 2. <Zap 1>에 표현된 작품과 히피문화의 주제

위의 표를 바탕으로 히피문화의 주제들을 작품에 반영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되었음을 밝혀둔다.

히피문화의 주제		캐릭터 및 제목	작품수	페이지 수 합계
비판주의	사회비판 지배문화 저항	Whiteman, Eggs Ackley, Nuttin but Nuttin, Just Us Kids!!, Mr.Natural, Niger Hearts, The Walkie Talkies	8	15
	명상가 풍자	Schman the Human, Let 's Be Honest	2	2
자유주의 (섹스와 마약, 폭력)		IT'S HIPPY!, Har Har Page, Flankey Foont Encounter Fatback, Just Look At the Amazing Results	4	3
실험성		Abstract Expressionist Ultra Super Modernistic Comics	1	3
낙천주의		Keep on Truckin'	1	2
실용성		Kitchen Kut-Out	1	2
초월주의		Dingdong Daddy	1	1
개인주의		Definitely a Case of Derangement	1	1
허무주의		Gail Snail	1	1/8

표 3. 히피문화의 주제별 반영 상황

위의 표를 정리해보면 <Zap 1호>의 내용은 모두 히피문화와 관련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히피문화가 <Zap 1호>에 반영된 주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비판과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을 다룬 비판주의적 작품이 8작품 15쪽으로 가장 많고, 명상이나 수도를 하는 사람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2작품 2쪽으로 일부 다루었다. 또한 섹스와 마약, 폭력 등을 다룬 자유주의적 내용이 4작품 3쪽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그리고 만화 형식에 대한 실험, 히피의 낙천주의, 실용성에 대한 주제도 2~3쪽으로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작가 자신을 표현한 개인주의 및 초월주의와 허무주의를 표현한 작품도 일부 있다. 반면 사랑과 자연, 공동체 등의 가치관을 다룬 작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로버트 크립은 <Zap 1호>에 비판과 풍자, 성과 폭력에 관한 주제에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Zap 1호>에 반영된 히피문화의 소재 중 중요한 하나는 음악이

다. 음악은 히피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Zap 1호>에서는 당대에 유행하던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를 많이 인용하여 만화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음악을 좋아하던 히피들에게 공감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유행가	유행가의 내용	반영사항
Diddy-Wha-Diddy	1956년 Bo Diddley가 만들고 Lyrically가 노래한 흑인의 신화에 관련된 내용	표지에서 할머니가 내츄럴 맨에게 노래에 대해 질문을 함
Keep on Truckin'	1930년에 발표된 장님가수 Blind Boy Fuller의 서정적인 노래 "Truckin' My Blues Away"의 일부	노래를 부르면서 느긋하게 걷고 있는 모습을 만화로 그려, 히피의 낙천주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됨
I'm a Dingdong Daddy	1930년 Phil Baxter가 만들고 Louis Armstrong이 노래한 합: 나는 듀마에서 온 딩동 아빠라는 내용	혼자 점프하면서 벽을 들이받고 폭발을 하는 몽상을 하는 남자

표 4. <Zap 1>에 반영된 히피음악

위 사항 이외에 <Zap 1호>에서는 저급문화의 특징을 반영하여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위 내용분석 결과, <Zap 1호>는 히피문화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만화에 반영한 언더그라운드 만화임을 알 수 있다.

3. 주요 작품 분석

<Zap 1호>에 표현된 여러 작품들은 각기 분석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반응이 좋았던 <킵 온 트럭킹>, <화이트맨>, <미스터 내츄럴>(Mr.Natural)'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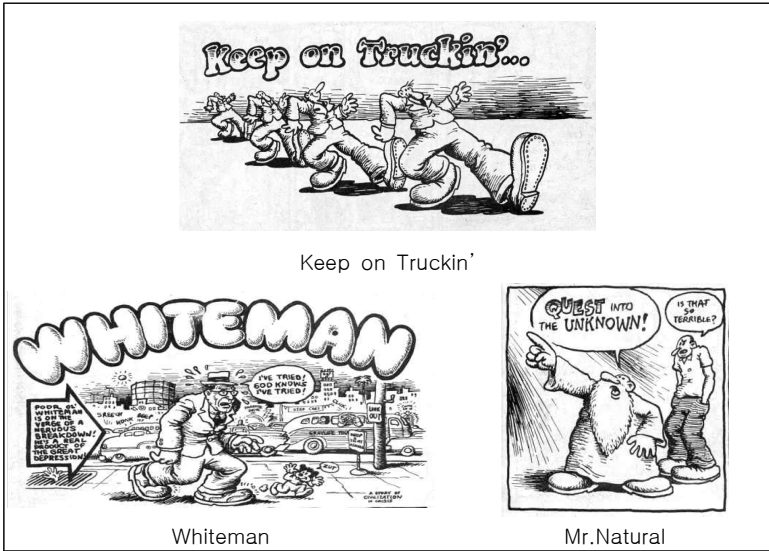


표 5. <ZAP 1호>의 주요 작품¹⁶⁾

1) 히피의 아이콘이 된 <킵 온 트럭킹>

<킵 온 트럭킹>은 장님가수 블라인드 보이 풀러(Blind Boy Fuller)의 서정적인 노래 <트럭킹 마이 블루스 어웨이>(Truckin My Blues Away)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로버트 크럼은 <Zap 1호>에 으스스대면서, 점잖게 웃으며 걷고 있는 특징적인 캐릭터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히피족 시대동안 히피의 낙천주의를 상징하는 아이콘(iconic)한 이미지가 되었고, 티셔츠와 포스터 등의 매체로 복사되어 넓게 사용되었다.

<킵 온 트럭킹>은 노래가사를 1쪽, 5컷의 만화로 그린 것인데, 사람들은 이 만화에서 히피의 정신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빅풋 스타일’에 흐느적거리며 걷는 <킵 온 트럭킹>의 이미지는, 당시 히피 문화 속의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해주어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16) Robert Crumb, 앞의 책.

2) 백인 중산층의 소시민적 욕구를 표현한 <화이트맨>

<화이트맨>은 미국 백인 중산층의 소시민적 도덕개념의 강박과 허위의식을 성공적으로 형상화 낸 4쪽의 만화이다. 길을 가던 백인 청년 남자 ‘화이트맨’은 성적 욕구불만을 표하고, 미국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기도 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는 파괴하고 싶은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또한 밤거리에 흑인들은 만나서는 공포를 느끼고, 행렬에 함께 가자는 흑인들의 제안에 망설인다. 기존 영웅주의만화에서 느끼는 비현실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들에 대해서 식상해 있던 당시의 대중들은 욕구불만과 허위의식에 가득 찬 ‘화이트맨’을 보고 많은 공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3) 히피를 닮은 수도승 - <미스터.내츨>

히피문화에는 반문명적 초월사상이 있는데, <미스터.내츨>은 이 주제에 맞는 캐릭터이다. 아직도 도시에 미련을 가진 부랑아 기질의 히피와 반문명적 자연사상의 카리스마가 한데 혼합된 주인공을 둘러싼 우스꽝스럽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미스터.내츨>은 대머리이고, 긴 수염이 있고, 예언자와 같은 가운을 착용한다. 이상한 신비력이 있고 우주적 통찰력이 있지만, 또한 각종 이상한 성적 강박관념으로 고통 받는다. 현대사회 및 악에 구제의 격언을 내뿜기도 하며, 물자 세계를 포기하는 대신 아무렇게나 생활한다. <Zap 1호>에 표현된 6쪽의 만화에는 <미스터.내츨>이 옛 친구를 방문하여,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냉장고를 뒤져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나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미스터.내츨>은 초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히피의 특징과, 현실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모순성을 우스꽝스럽게 조합시켜 많은 공감을 받게 된 작품이다.

4. 만화 스타일

<Zap 1호>의 만화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인간성 회복, 자연에의 귀의, 기술과 물질문명에 대한 저항, 실험정신 등의 히피문화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화의 스타일에 대해서 박인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화의 스타일은 그야말로 시각 스타일의 총체다. 그 안에는 페이지 구성, 칸 구성, 말풍선의 모양과 배치, 화풍(그림의 스타일)까지 한데 모여야 만화의 스타일이 구현된다. 거기에는 서사를 보여주는 방식들도 포함된다. 페이지 구성이나 칸 구성이 단지 이미지적 측면이 아니라 연출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당연히 컬러링도 중요한 요소다¹⁷⁾.

<Zap 1호>의 만화 스타일의 특징과 히피문화와의 연계성에 대하여 아래 표를 통하여 정리해보았다. <Zap 1호>에 표현된 만화 스타일을 분석해본 결과, 로버트 크럼은 자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불거리는 윤곽선으로 인간적, 자연적인 느낌을 표현하였고, 짧은 선과 점, 강렬한 명암대비로 우수한 그래픽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히피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캐릭터 중심의 만화를 그렸고, 사이키델릭한 실험만화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술과 물질문명에 대하여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사이키델릭한 그래픽을 선호하는 히피의 취향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7) 박인하, “이제 만화에서 스타일을 고민하자”, 『코믹스파크』, 2011년 9월 29일, <http://comixpark.pe.kr/130119742886>.

<Zap 1호>의 만화스타일	특징 분석	히피문화와의 연계성
짧은 선 및 점을 사용한 강렬한 명암 처리	반복적인 짧은 선과 점을 이용하여 강렬하게 명암을 처리함으로써 흑백의 만화이지만, 그래픽적으로 완결성을 피함. 수많은 짧은 선과 점으로 처리된 노동집약적 그림에서, 깊이감과 한편으로는 현실사회의 지저분하고, 부조리한 특성까지 느낄 수 있음.	기술과 물질문명에 대한 저항, 물건을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여 만드는 것을 선호함.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
구불거리는 윤곽선과 자유로운 형식의 칸	자 또는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직 펜과 붓으로만 구불거리게 그림으로써, 딱딱한 기계적 표현 대신, 유연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표현함.	인간성 회복, 자연에의 귀의
'빅풋' 스타일	머리는 작는데 발은 거대한 '빅풋' 스타일의 캐릭터는 로버트 크럼만의 독특한 스타일인데, 발을 매우 크게 그리고, 머리를 작게 그림으로써 큰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복잡한 생각보다 여유있게 살아가는 행동적 특징을 보인다.	경쟁에서 벗어난 느긋한 삶을 추구
옴니버스형의 짧은 단편 모음집	앞에 기술했듯이 <Zap 1>은 26쪽 안에 19개의 단편과, 10개의 주요 캐릭터가 있다. 이것은 로버트 크럼이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히피는 만화보다는 화려하고 사이키델릭한 그래픽을 선호하였음. 히피의 정신이 반영된 다양한 인간상을 캐릭터로 형상화 시킴.
실험만화	Ultra Super Modernistic Comics 는 그래픽적 요소가 강하고, 칸의 형식과 연결이 자유로우며, 알 수 없는 언어가 표현된 사이키델릭한 실험만화이다.	사이키델릭 포스터 선호, 실험성 선호

표 6. <ZAP 1호> 만화 스타일의 특징과 히피문화와의 연계성

IV. 결론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1960년대에 히피문화를 반영하여 시작된 만화의 한 흐름이며, 히피는 1960년대 미국에서 자유를 중시하고, 기존의 사회제도를 부정하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치며,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을 시도했으며, 인간성이 상실된 전쟁과 물질문명 사회제도를 부정하고, 기술주의와 문명맹신적인 문화에 대한 저항을 펼치고자 했다.

로버트 크럼의 만화집 <Zap 1호>는 28쪽의 움니버스형 만화잡지로서, 만화규약의 심의를 받지 않은 성인대상 만화이며, 히피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언더그라운드 만화로서, 히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언더그라운드 만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본 연구는 로버트 크럼의 언더그라운드 만화집 <Zap 1호>에 히피문화의 주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거대자본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작품을 통하여 직접 독자들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히피문화의 특징을 반영하여, <Zap 1호>는 출판과 유통에서 독립성을 기하였다. 로버트 크럼은 <Zap 1호>를 혼자 제작하였고, 히피 신문을 발행하던 돈 도나휴의 도움을 받아 출판하였으며, 유통은 직접 거리에 들고 나와서 팔다가, 나중에는 히피 슝을 통하여 판매되었다.

저항성을 바탕으로 하는 히피문화의 주제는 비판, 자연, 개인, 낙천, 사랑, 초월, 허무, 일탈, 공동체, 실험성, 실용성 등이 있는데, 로버트 크럼은 이러한 주제를 <Zap 1호>에 다양한 캐릭터와 스토리로 그려냈다. 반영된 주제는 사회와 지배문화에 대한 비판주의적 작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섹스와 마약을 소재로 한 자유주의적 작품, 그 외 사이키델릭한 실험만화와 낙천주의, 개인주의, 초월주의적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당대 유행하던 음악적 소재와 비속어도 자주 사용하였다.

<Zap 1호>는 히피문화에서 추구하는 주제를 다양하게 반영한

캐릭터 중심의 만화로서, 이 중에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캐릭터는 느긋하게 걸어가는 히피를 그린 <킵 온 트러킹>과 보수 중산층의 숨은 욕망을 꼬집은 <화이트 맨>, 히피를 닮은 수도승을 그린 <미스터. 내추럴> 이 있다.

<Zap 1호>의 만화 스타일은 히피문화에서 추구하는 자연주의나 사회 비판주의, 사이키델릭한 그래픽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구불거리는 윤곽선과 짧은 선 및 점, 강렬한 명암대비를 통하여 그래픽적 효과가 우수한 만화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로버트 크럼의 만화집 <Zap 1호>는 히피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출판과 유통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기하였고, 내용에 있어서는 히피문화를 반영한 주제 및 캐릭터 중심의 만화였고, 만화 스타일에 있어서는 히피문화의 특징을 구불구불한 선과 점, 강렬한 명암 대비로 그래픽적 효과가 우수하게 표현한,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특징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Zap 1호>의 성공으로 <Zap 2호>부터는 실력있는 만화가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언더그라운드 만화’ 라는 큰 흐름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당시의 만화표현에 제한을 하였던 규약과 상업적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영웅주의적인 만화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운 성인만화 시대의 문을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다.

로버트 크럼의 만화집 <Zap 1호>는 예술이 당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언더그라운드 만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 <Zap 1호>를 중심으로, 언더그라운드만화의 특징은 무엇이고, 히피문화의 주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나, 국내에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어서 앞으로 언더그라운드 만화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Zap 1호>에는 히피문화 외에도 로버트 크럼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기홍, 『만화로 보는 미국』, 살림, 2005.
- 로버트 크럼, 김제민 역, 『로버트 크럼의 아메리카』, 새만화책, 2004.
- 로저 새빈, 김한영 역,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밭, 2002.
- 간문자,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2).
- 박인하, 「이제 만화에서 스타일을 고민하자」, 『코믹스파크』, 2011년 9월 29일, <http://comixpark.pe.kr/130119742886>.
- 박인하, 「화평-로버트 크럼의 아메리카」, 『성균지』, 2007년 9월 27일, http://skkpress.com/zboard/zboard.php?id=article&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9.
- 코믹스 리더, 「언더그라운드만화 -02」, 2011년 9월 30일, http://blog.naver.com/c_media/130119767812.
- 다음 어학사전, <http://dic.daum.net>. 검색어: 움니버스.
- 다음 어학사전, <http://dic.daum.net>, 검색어: 사이키델릭.
- 두산 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검색어: 히피.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www.britannica.co.kr>, 검색어: 히피.
- Crumb, Robert, *Zap Comix No. 0-2*, Apex Novelties, 1968.
- Crumb, Robert, Peter Poplaski, *The R. Crumb handbook*, MQP, 2005.
- Skin, Dez, *Comix: The underground revolution*, Thunder's Mouth Press, 2004.
- Wikipedia, <http://wikipedia.org>, 검색어: Zap Comix.

ABSTRACT

**Underground Comics and Hippie Culture:
Focusing on <Zap Comix No.1>**

Ham, Jong-Ho

Underground comics is a trend of comics started by reflecting hippie culture in the 1960's. It reflects hippie culture proclaiming return to nature and denying war with no humanity and social systems of material civilization expresses anti-culture in a radical and humorous way.

Robert Crumb adds the features of hippie culture to comics aggressively with issuing comic book, <Zap Comix> series. Especially <Zap Comix no. 1> received great response from hippie. It became the chance for underground comics to improve further. <Zap Comix no. 1> includes works like 'Whiteman' expressing the hidden desire of conservative middle class or 'Keep on truckin'" describing youths in hippie culture as characters lording it over somebody, strutting confidently across various landscape.

The Comic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independently and character-driven comic that reflected the variety of hippie culture. The Comic re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derground comics very well. Winding lines and points, a strong contrast, were used for excellent graphical effect.

These comics escaped from heroic comics of the era and played great roles in opening an era of underground comics which express satires of social culture more freely.

Key Word : <ZAP Comix No.1> , underground comic, Robert Crumb, hippie culture

함종호

공주대학교 만화학과 박사과정

(320-83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12-9

Tel : 041-833-1195

hamnuri00@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2.08.01

심사종료일 : 2012.08.24

게재확정일 : 2012.09.07